나눔의 소공동체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2015년 1월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35장 나는 포도나무요)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35-42)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③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④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⑤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⑥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35-42 “와서 보시오.” **(1/18 연중 제2주일)**

한민택 바오로 신부

요한복음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봅시다.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안내로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라삐’, ‘스승님’** 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초대로 그분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함께 묵은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만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러한 호칭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그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와서 보아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스승께서 사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요한 복음사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거든 와서 보시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사시는 곳으로 가서 함께 머물며 그분의 삶을 직접 뵙지 못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로 제자들은 그분을 뵙고 그분께서 사시는 곳으로 가서 머물며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을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서 보시오.” 그분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면 그분이 사시는 곳으로 찾아가 그분과 머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안드레아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합시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는 예수님을 각자의 삶에서 만납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걸어오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시는 곳은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여러 성사들을 통해 그분을 만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성인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또한 이웃들 안에, 특히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만의 작은 세상에서 나와 성체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 안에 숨어 계신 그분을 찾아뵙고 무릎을 꿇고 경배합시다. 그분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답해주실 것입니다.

(수원교구 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읽고 푸는 성경퀴즈’

◈ **이 달에 읽을 말씀:** 열왕기 하권 1-5장

◈ **성서문제**

1. 옥상 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1,2)

2.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와 함께 한 여정 네 곳을 순서대로 쓰시오.(2,1-7)

3.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왕 메사를 치기 위해 연합한 나라가 아닌 곳을 고르시오. (3,9)
   1) 이스라엘
   2) 유다
   3) 에돔
   4) 요르단

4. 엘리사를 위하여 숙식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4,8-11)

5. 엘리사의 종 이름은 무엇입니까? (4,12)

6. 엘리사의 집을 방문한 나아만에게 이른 말은 무엇입니까? (5,10)

◈ **열왕기 하권 개요**

열왕기하는 그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서술한 역사성을 띤 책이지만 역사적 사실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충실 여부에 따른 신명기의 기준에 의한 종교적 과정에서 기록된 역사서이다. 열왕기하는 분열된 이스라엘, 즉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가 되는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약속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느님을 떠나 우상에 심취했으며 이방 세력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김으로써 파멸을 자초하였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난 역시 하느님을 찾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공지사항

※ 2/28(토) 전 봉사자 교육 및 피정 안내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중심으로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최인각 바오로 신부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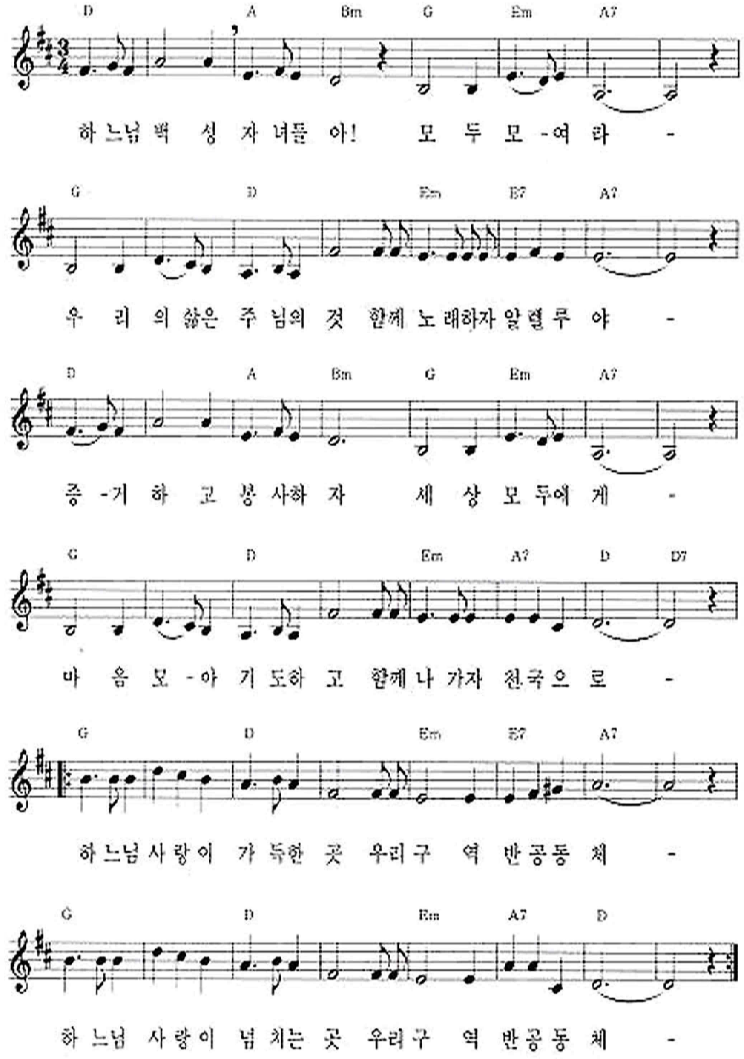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